

지역 매 아 리

‘축제와 만나장’ 으로 오세요

30일부터 이틀간 진안군청 광장서 열려 공연·먹거리존·체험존 등 부스 다양

여름밤에 열리는 어울림과 삶의 문화예술장터.

공연과 놀이, 먹거리를 함께 즐기는 신나는 축제의 장인 ‘축제와 만나장’이 오는 8월 30, 31일 2일간 진안군청 광장에서 열린다.



공연과 놀이, 먹거리를 함께 즐기는 신나는 축제의 장인 ‘축제와 만나장’이 오는 8월 30, 31일 2일간 진안군청 광장에서 열린다.

제12회 진안군마을축제 프로그램인 이번 행사는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외부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 외에도 먹거리존, 생활공예존, 농산물존, 체험존 등 다양한 부스가 준비 중이다.

관내 작은 도서관들이 참여해 리사이클링 관련 전시와 북존 등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이 외에도 행사 인증샷 전송, SNS 공유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행사장 부스 상품권, 홍삼 제품, 진안홍삼스와 이용권 등 푸짐한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 김용태 위원장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전 지역축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공연을 준비했으니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축제와 만나장’은 30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31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반딧불야시장 상인들 이웃돕기 나서

무주군에 쌀 100포대 기탁

무주반딧불야시장 상인(무주시장 상인회)들이 이웃돕기를 위해 정성을 모았다. 무주군은 무주시장 상인회 회원들이 지난 24일 쌀 100포대(280만원 상당, 1포대/백미 10kg)를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쌀 기탁행사는 밤 8시 무주반딧불야시장 현장에서 관내 주민과 외지 방문객 등 3백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무주시장 상인회 박용식 회장은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 곳곳에 훈훈함을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 상인들의 마음”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더 많으셨을 텐데 쌀과 함께 건강과 용기도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무주시장 상인회로부터 전

달받은 쌀을 6개 읍·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차상위 계층, 결식주민, 그리고 결식 위기의 가정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에 개장(~9.8)한 ‘별보고 장보고 만나고’ 2019 무주반딧불야시장은 매주 토요일(19:00~23:00)마다 맛있는 먹거리와 ‘가수들이 함께하는 축하공연’ 등의 볼거리를 호응을 얻고 있으며, 무주반딧불야시장(8.31~9.8) 기간에는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어울림 무대를 중심으로 특색장터가 열릴 예정이다.

무주군반딧불야시장은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운영이 되고 있으며 6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운영됐던 2018 야시장에는 2만 7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1억 2천여만 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부모 건강 자녀 알림 서비스

진안군은 진안을 취약노인 독거노인 83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 관리서비스에 대한 부모 건강 자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진안군 마을건강조사 결과 마을 돌봄이 필요한 3,708가구 중 독거노인이 48.6% (1802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29.2%(1083가구)가 진안읍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안을 독거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모 건강 자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1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혈당, 혈당 체크는 물론 현재 건강상태, 복용약 점검, 폭염,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방문결과는 문자 알림을 희망하는 자녀에게 부모의 건강상태를 우편 발송 또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시골에 홀로 사는 부모님의 건강이 늘 걱정이었는데 진안군 보건소에서 수시로 방문하여 말벗은 물론 건강상태까지 관리해 문자로 보내주시니 멀리 있어도 마음이 한결 편하고 일에 전념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초 등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내 5개 시·군의 ‘국유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추석 맞이 국유임도 한시적 개방

무주국유림관리소, 9월 22일까지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지난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초 등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내 5개 시·군의 ‘국유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관내 5개 시·군(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 내 38개 노선 190km 중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낮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임도에 한하여 개방된다.

국유림 내 임도는 숲가꾸기, 산불 예방 등 산림의 경영과 보호를 위해 시설된 산림 내 도로로서 노폭이 좁고, 비포장구간이 대부분이므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임도 이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운전이 요구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묘지관리를 빌미로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임도 내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고 낙석 및 위험이 있으며, 임도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농촌진흥 시험사업 현장 점검

무주군은 오는 28일까지 읍·면 동향과 영농상황 파악, 그리고 2019년도 주요 농촌진흥 시험사업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산기술보급 시험사업 4개, △과화영농환경 기술지원사업 2개, △농작물병해충 예방방제사업 3개,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14개, △군 자체 시험사업 6개 등이며 담당 팀이 주축이 돼 시험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의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또 시험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수렴하고 필요한 현장 지도를 병행해 사업 추진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김충성 소장은 “농촌진흥 시험사업 현장 지도점검은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11월 2~3일에 개최 예정인 농업인의 날 기념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알리기에도 집중할 계획으로 한마당 축제가 농업인 화합을 도모하고 농업소득을 키우는 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농가사료 구매자금 14억8천만원 지원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제외

진안군은 지난 22일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부담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 구매자금 14억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농업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기존 가축 전염병예방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뿐 만 아니라 축산법,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사료 구매자금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으로 사용되며, 지원조건은 100% 용자에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지원축종 및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 8000원 등이다.

축종별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사슴, 산양, 토끼 등의 기타 가축은 9000만원 한도 내이며 영세농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료 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장수군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진기, 이명자)는 최근 면사무소 1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자원 발굴 및 연합모금 협약에 대한 논의와 도시락 배달 특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천천면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 사업을 3년째

이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했다.

이명자 위원장은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관내 복지 소외계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기 천천면장은 “이번 정기회의

를 통하여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홈페이지 www.jjmaeil.com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